머 릿 말

편집장 남 현 우

인간의 지식이란 얼마나 유한하고도 불확실한 것인가? 어제의 모든 이론과 가설이 하룻만에 뒤바뀌거나 변형되는 것을 종종본다. 인간적 편리를 위해서 윤리개념이 바뀌고 도덕이 침식당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분명한 세태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지표가 있을 수는 없는 걸까? 있다면 무엇일까?

너무도 순수하게 시작된 신학도상이 날이 갈수록 놀라우리만치 개인적 확신으로 확고하게 자리잡혀 가고 있다. 이 불의하고도 불확실한 세상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길잡이는 성경적 기반위에 세워진 신학적인 생각들 뿐이라고 믿는다.

이번 호에서는 언약사상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기획 되었으나 충분하게 취급되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쉽다. 아무쪼록 이 주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은 '언약'이라는 주제를 취급한 점에 대해서 이상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이 기회를 통해 알게 되면 좋겠다. 막연히 들어 왔던 언어를 좀 더 확고히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레미야31 : 31-34에대한 구속사적주석시도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박 종 칠
(고려신대원교수, 구약신학)

햇수가 바뀌지니 신문이며 모든 잡지들은 "옛것"과 "새것"엘 대한 말들이 많다. 더욱이 21세기를 넘나보는 마지막 10년이고 80년대에 나라안과 밖에서 세계사적으로 격란기를 겪은 우리 인류들로서는 감회가 새로운가 보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 문제가 아니고 한 해가 다른 한 해로 이전해 가는 새 달력이요 새 년수로서 모든 것이 태양의 새로운 진로와 관계되는 것으로, 봄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하니 "새해"의 소리들로 가득차고 있다.

그러면 오순절에서는 어떠한가? 기독교의 오순절이 태양의 진로와 관계되는가 할 때 날자와는 별로 상관 없는듯 하기도 하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옛것과 새것이란 말을 많이하지만 그것은 날자와 관계되기 보다는 "새로운 정신"할 때 "정신"과 관계 되고 있다. "유신"이니 "혁신"이니 "신대륙""새로운 바람"이라 할때 새로운 사고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정신이 언제 어디서나 불어와야 한다고 말을 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오는 여러 날자들에 관련될런지 몰라도 신년의 태양진로의 변경같은 일정한 한 날을 의미하는것 같지는 않는것 같다.

그리고 일견 기독교 오순절 하면 높은데서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들었던, 교회의 성령 충만 같은 어떤것 사람들마다 제각기 말하고 구사한 어떤 것이니 바라는 새로운 정신이 쏟아부어져서 새바람이 불어와 불타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자들이 "통일정신" 의 집약의 본보기가 사도행전 2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곧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더 나은 이해인가? 그러나 기독교에서 옛것과 새것이라 할때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즉 옛 언약과 새언약으로서 통상 말하는 구약과 신약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념에 확신하는 자까지도 일정한 날자에 일정한 사건 때문에 옛것에서 새것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건들과 사실들이 후대 공동체 신앙의 산물 즉 신화로 보아지고 있다. 이러 현대정신으로 보아질때 성경권위에 굴복하여 구속의 근거로서 구원사실을 잘 믿는 신자도

오순절 옛것과 새것의 경륜의 분깃점의 절기로서의 의미를 잘 파악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그리스도 부활 후 7주 후에 일어난 그당시 사건인데 이 사실 자체가 종종 평준화(상대화)가 되고 있다. 즉 성령부어주심(그 당시 당번 사건)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사역, 곧 날마다 신자생활에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오순절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보아라.성령은 항상 언제나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수 세기 전에도 의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언제나 쏟아부어졌고 인간 마음에 거듭 부어주지 아니했던가? 그리하여 잘 믿는 신자들은 오순절을 기꺼이 말하고 온 한해를 오순절날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인간에게 역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평준화하므로써 그 당시 예루살렘 그 곳 아침에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의 축제의 뜻이 별로 남지 못한다. 그러나 오순절은 그때 그 당시 단번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결코 반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성령 부어주심은 새 불길을 위한 결정적 단번 사건이다. 이 그리스도의 사실과 행동은 재반복 될 수 없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승천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적 자료로 설명해 버리는 현대적 비평에대해서와 이 사건을 상대화 해버리는 고대의 봉건주의에 반대하여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진실한 유일한 단번 사건임을 확실히 해야겠다. 많은 명상들과 설교들이 이 복음의 명백한 언어를 다소 타협하여 오순절의 단번성에 대해서는 성탄과 부활과는 다소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복음의 순수한 단순성이 진지하게 받아지지 않는다면 즉 오순절이 단번 전이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결정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시대적 정당성을 이해못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참된 보화의 무궁한 선물을 이해못하며, 교회투쟁을 기동력 있게 하여 주의 재림을 예비치 못할 것이다. 오순절 구원사건은 그리스도 재림 전의 일이고 교회는 이 오순절과 재림사이 곧 광야에 있으면서 어려움은 있으나 모든 보화 은사를 갖고 있는 천상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서는 그의 약속에 따라 한순간 한순간 성령으로 회중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산다.

〈옛것에서 새것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오순절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 8장만큼 분명하게 오순절 자료와 관련해서 옛것에서 새것을 말하는 데가 없

다. 여기서는 새 언약을 말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길게 인용된다(히8 : 8-12 렙31 : 31-3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언약을 만들때, 그 언약은 주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만들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새언약은 하나님이 저들 백성들 마음에 자기 법을 기록할 것이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언약의 절정은 저들의 죄를 이상 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이러므로 "새것"이라고 불러진다. 지나간 것을 옛 것이라 하고는 옛것과 새것을 비교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자가 신년연대로 계시되는가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완전한 중보사역에서 출발되고 있다. 히브리 8장과 밀접히 관련되는 히9장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데 한번에 드린 제사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제사로서 또 다시 한 번 오실 것으로 약속한다. 그런고로 히브리서 마지막장들 즉 10장과 12장은 매우 영광스럽고도 진지하게 구약교회에 비해 신약교회의 우월한 입장을 설명한다.

신약교회에서는 이상의 언약저주(verbookswrak)를 당하는 이런 우월권이 오히려 옛날 백성에게서 보다는 아주 뚜렷한 책임있는 현실로 나타나는데 "모세율법"하에서도 아주 준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고 하므로 신약교회의 우월권이 크게되었음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며 옛것에서 새것으로 아주 전이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내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 축제의 날에 그리스도는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오순절의 새시대의 신년날자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는 앞의 많은 사건들이 다 필요했다. 태양이 새로운 정월 일일에로 접어들기 이전에, 즉 한 날에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부어 주시기 이전에 성육이며, 십자가에 못박히심, 부활, 승천 같은 적지 않은 일들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성령 부어주심은 "사역의 면류관"으로서 교회가 새로운 달력을 얻게 된셈이다.

여기 이 사건이 있기까지 교회는 "기다려야"만 했지만 지금은 한 단계에 올라서서 밀실에서 일터로 들어간다. 희망찬 신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된 말씀은 오순절이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날로 예시되고 있다.

이 히브리서에 인용된 본문은 앞에서 말했듯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온 것인데 예레미야에서는 여러 다른 것과 관련해서 다른의미 곧 포로생활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귀환하는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하수속에 던지며 바벨론이 여호와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울할 것이라고 했는데 (렘51 : 59~64) 바벨론 멸망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유다 자손이 귀환할 것도 내포하고 있었다(렘50 : 4~7).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갈멜,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렘50 : 19). 그리하여 이 귀환은 고레스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주전1,2 세기에 유대인들이 뵈뢰아 거주한 것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 예언과 함께 직접관련을 가지면서 나오는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찌라도 없겠고 유대의 죄를 찾을 찌라도 발견를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렘50 : 20)고 한다. 그러니 예레미야50-51 예언 속에는 서로 다른 사건들이 얽혀있어 하나의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바벨론멸망,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백성의 정착, 죄악의 사죄 같은 요소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 예언은 실현은 시대를 두고 여러 상이한 층계들을 거쳐간다. 처음에는 하나가 오고 그 후에는 다른 것이 온다. 훗날에와서 우리는 그 때와 계기들을 알 수 있고 여러 사실들 간의 시간적 거리를 정할 수 있으나 예언자체에서는 모든 것을 망원경으로 보는것 같이 사물들이 서로 얽혀있어 상호거리를 구분해 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종종 "선지적 조망"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선직 조망의 예언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는 개혁자들간에도 이견들이 있다. J. Van Bruggen 교수같은 이는 우선 이 선지적 조망이란 말 자체 이해에 있어서 렘50-51 장에서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예언들, 즉 여러가지 내용을 가진 예언들의 성취조망(een vrulingsperspectiet van profetieën met een gecompliceerde structuur, profetieën met een meervoudige inhoud)으로 보고있다.

복잡하고도 멀리 뻗어 있는 미래 예언을 다룰 때에 그 예언이 실현됨에 여러 다른 층계들—복잡한 예언내용들의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니 비복합적 예언 즉 예언의 한 말씀이 여러 성취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어불정사라는 것이다. 예언된 비자의 한 말씀이 어떤 시기에 성취는 되지만, 이 성취를 두고 층계적으로 나누어 "시초적"(a an vankelilke) 성취며 "후기"(latere)성취 또는 "가난한"(armer) 성취와 풍성한(rijkere)성취로 나누는데 성취란 말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실현된 사실이 "가난하다" "부하다" "실망적이다" "고무적이다"라고 할런지 몰라도 성취는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것, 예언된 바의 의도가 왔는냐 안 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비적으로 왔다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Van Banggen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이사야의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지금 결국 채워졌다고(마1 : 23) 하는 의미 외에 다른것이 아니라고 한다.

순교자 저스틴도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부단히 보여줄려고 한것은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이사야의 7장이 히스기야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한다. 2세기의 신자들은 시초적 성취와 후대의 성취와 타협하지 아니하였다고한다.

이사야 7장에서도 한 남자를 언급함이 없이 한여자에 대한 신비스런 말씀이 다윗집에 징조로 주어졌다고 한다. 이사야7-12장 안에서도 한편 징조가 미래의 신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8 : 8 ; 8 : 10 ; 9 : 1-6 ; 11 : 1-10). 이렇게 Buggen 교수는 한 예언 말씀이 일정한 시기에 단번적으로 성취됨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H.J.Schilder교수는 "Immanual"(De Reformatie Ⅱ (1975~1976) pp 673~675)라는 표제 하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아하스시대에도 연관됨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의 예수의 탄생예언도 됨을 설명한다.

우선 그는 7 : 14의 예언이 유일예언임을 삼기위한 시도로 "처녀"(하알마)가 정관사가 있는 "그 처녀"이며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반대한다. Gesenius-Kautzssh의 히브리 문법에서도 그 히브리 단어가 여자적으로 "젊은 여자"(die betreffende jurde Frau)이지만, 독일어로는 "한 젊은 여인"(eine junge Frow)을 뜻한다는 문법적 말을 스킬더 교수는 취한다(Hebräisde Grammatik Hildesheim:Leipzig, 1909) Par 126r

그리하여 "하알마"는 "한 젊은 여인", "결혼한 여인"를 의미하며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일수도, 아하스왕의 아내일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본문의 강조가 말하는 한 징조는 "처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징조인데 그것은 "한 임신한 젊은 부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 이라고 하리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이름에 징조를 주므로 불신하는 아하스에게 야웨는 앞에서 아하스에게 제시된 선택과 신랄하게 대조시킨다는 것이다. 아하스는 높은 하늘에서든지 깊은 땅에서든지 한 특별한 징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는 불신과 사이비한 경건심으로 이 제시를 거절하니 야웨께서 전혀 다른 종류—첫 제시한 징조와는 다른 —의 징조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지금 불신자 아하스에게는 무슨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보통"징조 그래서

그에게는 이 위급한 전쟁 난국시에 야웨의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내용이지만 아하스에게는 "재앙"을 의미하는 그런 징조 였다.

여기에 선지자는 유다에 한 젊은 여인이든 결혼한 여인이든 간에 그 첫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 아들이 본질적인 징조를 가지고, 이 첫 아이를 "이 유대여인"(Zomaar-een-judse-urovw)이 임마누엘 이라고 부르는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람-에브라임의 전쟁위급시에 이 아이가 야웨에 대한 신앙 표현을 준다는 것이다.

이 이름이-아하스는 불신하여 동의안하더라도-그녀의 아들 작명에서 유다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앙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야웨가 엘로힘으로서 그 백성생활을 통치하시고 사태를 좋게 방향을 틀어 나가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야웨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다윗집에, 시온에 있는 자기백성을 위하여 주신 고대 약속을 굳게 잡고 있었다. 이 징조의 결과는 이사야7 : 15,16절에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아직 젊을 때에, 아하스는 야웨가 이방세력을 어떻게 필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엘로힘으로서 이방세력을 제치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대에 자기 백성에게 하였듯이 야웨가 얼마나 진실무망 하신지를 나타낸다. 이것이 이 위급한 지경에 하알마가 이런 것을 통해 어떻게 믿고 고백하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1 : 23의 "성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약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7 : 14에 강조되어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누구에게서부터 구속이 기대될 것이며 누가 그 구속을 이룰것인가? 인간 자신이냐? (아하스나 그의 노력자들이 생각하였듯이) 아니면 야웨엘로힘이냐? 할때 대답은 분명하다. 구속을 야웨에게서부터만 부터 나온다.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9장에서는 구속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뛰는자로 말미암음도(아하스가 자신의 힘으로 할려고 하였다)아니요 오직 아버지가 보새신 자로 말미암음이요(요1장) 자비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속이 나온다.

이로써 이사야 7장에 강조되는 임마누엘 이라는 작명에서의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견고한 기초가 여전히 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한결 예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본문의 약속 내용이 보다 더 성취쪽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신약의 주석은 구약에서보다 더욱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욱 풍성히 직접적으로 신

약에서는 전개되고 있다. 구약책에 주어진 징조가 신약책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직관사가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학자들의 견해〉

이제 다시 옛 언약과 새언약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 31장에 관련하여 일어난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예레미야 31장의 예언부분이 포로귀환을 의미함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구약학자가 있는가 하면 포로귀환과 새언약의 관계를 아주 강조 하고서는 예레미야 31장의 새언약은 소위 말하는 신약이전에 왔다고 하므로 새 언약의 연대가 신약에서 연유하는 것을 반대한 교의학자가 있다. 전자는 G. Ch. Aalders(Het Verbond Gods Kampen, 1939). p. 152f)이요 후자는 K, Schllder("Het Verboud Gods" De Reformatie XIV(1938/9)315f)이다. 이들은 1930년대 부터 일어난 화란교회 논쟁-그 중에는 언약개념 차이도 포함함-에 휘말렸던 자들인데 알더스의 책은 1939년에 출판되고 스킬더의 논문은 이 알더스의 견해를 비평하면서 1943년(이 논쟁 결과로 화란교회는 나누어졌음) 이후에 나왔다. 특별히 그가 교의학자이니 아무런 주석적 근거도 없이 나올수 있는 전제의식을 분석환 채 폭넓은 주석적 노력과 관심으로 교의학적 주제를 다루었다. 그의 성경연구(Schriftoverdentingen)에서 나오는 교의학적 조우는 성경 구약학자와의 논쟁하기에 충분하였다.

알더스의 입장은 사실 자기 동료 구약학자 J. Ridderbos의 견해를 반대해서 나온 입장이다. 리델보스는 알더스 못지않게 이원론적 언약개념(신약대 구약)에 헌신한 자로서 그 당시 첨예화된 성경의 자유하는 말씀에 보다 교회 총회의 해석적 권위에 매이고 있었던 분이다. 그러나 리델보스-처음에는 조직신학자였음-는 본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가진다. 즉 예레미야예언은 전체장과 분리될 수 없고 또한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전진하는 역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포로귀환 후의 백성들의 재건은 예언의 "시초적 성취"라 본다. (J. Ridderbos, Her Godsword der Profeten, III von Nahum tot Jeremia), (Kampen, 1938) f: 270 그러나 알더스는 이 리델보스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는 구약주석가로서 놀라와 하고 있다. 알더스는 이 문제를 히8 : 6-13(신약)과 사실적으로 관련지운다. 즉 "성취의 빛"에서와 "신약의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의 "새로 구성된 시작"의 연대를 "어떤 순간에도 불확실한 것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하는 신약의 본문에 따르면 "새언약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신약시대 하에 두는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Nalders

Ibid p156).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한된 의미로 포로귀환에 즈음해서와 후에 발견되는 회복을 제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리델보스가 의미하는 바의 포로귀환에서 예비적 성취가 되었다는 견해는 단호히 거절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알더스에게는 예레미야 말씀은 양 언약간에 "결정적 대립"(besliste tegenstelling)을 만들고는 "시내산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대회"(Veruangen)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니 안더스에게 나타나는 독특성이란 아주 대립되는 이원론적 언약 구조라는 것이다. 즉 순수한 외적 얽어매는 결속으로 된 하나님 백성(민족 Nationality)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얽어매는 결속은 순전히 내적인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나, 후자의 백성에 속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오직 절대적으로 주의 법이 심령에 기록되는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의해 인간 영혼에, 하나님 자신의 은혜스러운 간섭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력적 관계에 의하는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오순절을 전후해서 전개되는 언약 구조가 신랄히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 두 학자들의 논쟁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다소 수정 보완되기는 해도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대립되는 설명방식에서 오는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 내에서의 관계를 거절하는 구약학자의 설명과 신약적 성취에 많은 가치를 두면서도 구약 내적 관계에 대해 온전한 생각을 주는 교의학자 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두 할자의 논쟁의 배경이 1930년대 화란교회의 신학적, 교회 정치적 배경들의 요소가 개입된 점도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주식을 하든, 교의학을 하든 간에 성경 해석에서 계시사 또는 구속사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정당하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서 B. Jongeling의 연구 "예레미야31 : 31-37 주식에 대한 연구"("opmerkingen over de exegese von Jeremia 31 : 31-37." kerkniensus von de Geref Kerk te ortt, uit sappemeeer irg, No. 20)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나 gongeling은 예레미야31장에 언급된 심비에의 율법기록이 중생 곧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령갱신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구속사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예레미야 예언은 신 [illegible] 중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 본문이 옛 언약과 새언약간에 일[illegible]성있게 말하는 대조를 보아야 하는데 시내산 시대에는 어떠한 마음 정신도 없고, 주께서 자기 구속사역으로 역사한 이스라엘 역사가 구속사임을 부인하는 자이다. 그리고는 주께서 신약시대에서는 영적으로 주시고 사역하였음을 자연히 나타내는 역사적 의미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 IV, 16, 12에서 "분노하고"있다. 칼빈의 결론인즉 "옛 언약과 새언약간의 대조는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런고로 "새언약의 새것이란 그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반되는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더욱 정확히 공식화가면 예레미야 본문에서 선포되는 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 없고 새 언약의 경륜(Verbondsbedeling)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은 주식적 논증이든 교의적 논증이든 간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어떤 이는 피상적으로 이런 비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는 새언약 이라고 말을 하지 새언약 경륜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그 말씀이 가진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비난은 못 될 것이다. 구속사 인정과 얼마나 관련이 되는지를 Jongieing은 다음의 결말 중에서 명확히 드러냈다.

"지각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설명이 구속사의 진전을 강력하고 있음을 이미 주의하였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아무런 시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옛 경륜이나 신경륜이나 똑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로 차이점이 있다. 구속사의 이러한 진전을 감지하는 자는 성경에서 많은 새로운, 전에는 결코 감지하지 못한 보화들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생활에서 부요를 누릴 것이다.

또한 많이들 의문시되는 성구들도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doorichtiger). 그래서 렘31 : 34에서도 구속사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는자는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고 한다.

이 예레미야 본문 이해를 위한 구체적 논거가 무엇이냐 할때 이미 언급한 대로 "심비에 율법기록"이다. 이 설명을 위한 출발점은 시내산 언약의 경륜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이 차이점은 갈라디아 4장 시작에 나오는 비유로 분명해지고 있다. 시내산 언약경륜의 교회는 유아기의 교회요, 율법하에 사는 종과 같은 유아다. 더 설명하면 유아는 교회 연보할때의 조그만한 일에도 정확한 지시(voorschriften)에 따라 한다. 이에 반해 성숙한 이들은 자신의 주일 헌금을 스스로 정한다. 이렇게 전의 유아기 상태의 교회가 신약경륜 시대는 성숙하여 스스로 예배를 정돈한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꽉 매여서 그렇게 한다. 즉 율법이 규범으로 남아있기는 하다. 말하자만 자기 재량에 따라(uit eigen aandrift) 율법이 명하는 것을 한다. 이제 교회는 마음에 율법을 기록함이 마치 성숙한 아들이 가정법을 마음에 새김과 같다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외적 언약 속성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사제주의적 교권주의는 떨어져 나가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며 선지자들이며 왕들이 된다. 이러한 신자들의 직분이 렘31 : 33에 (율법이 마음에 기록됨) 지시되고 있으며 34절로 역시 "작은자로 부터 큰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고 한다. 후원자며 후견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제는 교회는 스스로 신자들의 직분자로 나타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인용한 바와같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이야 말로 새로운 경륜시대의 교회질서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교회질서르 파괴하는 자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못할 것이다.

이 모든것에서 볼 때 Jorgeling은 칼빈의 입장을 따라 "새언약"은 실제로 "새경륜" 곧 오순절로 보는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새언약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알더스의 노선이 있다. 그런데 Jongeling은 오순절 성취에 주안을 두고서는 선지적 조망을 논외로 하지만 잊을 수는 없는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나는 오순절과 함께 돌입하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였을 뿐이다.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은 이 예언은 비록 내가 포로생활과 오순절 사이의 시기를 제거하지는 못해도 특히 오순절을 본다는 것이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전조형(preformatie)이다. 그것은 시내산 이스라엘 보다는 적은(minder) 나라요 그리고 더 큰 회중(meer gemeente)이다. 나는 이제 이것에 안주하겠는데 선지적 조망을 고려한다는 것은 구속사를 고려한다는 것과 같은 노선이다.

둘다 역사를 곧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그 성숙에로의 진전 같은 것을 안중에 두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Jongeling의 말에도 오순절이며 신약 이전에 예언성취의 여지가 있으며, 구약자체가 의도하는 바의 구약연대에 관계되는 여지는 남기고 있다. 그래서 포로 후의 유대인의 "회중"(gemeente)에 대한 중요한 견해도 이런 점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Jongeling은 이 논문에서는 예레미야의 본문의 예언이 오순절에 대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당성은 히브리서 8장에서 찾고 오순절에 성취됨을 강조 하므로 얼핏 보면 알더스의 구신약의 대립되는 기원론적 결론을 내리는 것 같지만 기실은 순수하게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눈을 돌릴 때에는 구약시대 자체 안에서의 구약본문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문제는 이 유명한 예레미야 본문의 성취가 구약적 관점 곧 열방에서 흩어져 있음에서의 귀환과 어떤 관련을 가지느냐? 먼저 이 본문이 전체 문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다.

〈전체 문맥에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31장에 대한 여러 학자들 구약학자며 교의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봤다. 구약의 현대적 동향은 구약에 대한 큰 위치를 부여하고 구약연구에 큰 의의를 발견하고 있다. B. Jongeling도 예외는 아니고 그는 계속 그의 학위논문 Le rouleau de la guerre des manuscrifs de Qumran (Assen, 1962)을 써서 구약자체 연구의의를 더 계속했다. 이와함께 스킬더는 예레미야 31장에 대해 교의학적이면서도 조직적 방법이 아닌 주석적 방법으로 구속사에 견해를 가지면서 주석과 교의학이 각각 그 자체구실을 하면서 상호결합을 시킨다.

문제는 구약시대 자체 범주안에서 예레미야 예언성취—프로귀환—와 신약적 오순절의 이후 날자를 어떻게 상호관련 지울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주지하였듯이 K.스킬더는 예레미야의 새언약이 신약이전에 이미 왔음을 아주강조 하였다. 그후는 "폐쇄하는 그 시간의 기회를 향하여 작동한다."(doorte werken, naar de geleganheid van den tijd die daarmee aan breekt)

이런 원리가 구약을 해석함에 이 예레미야 본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지자료들을 해석함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미 말한대로 성취 문제에 가서는 선지적 조망으로서 예언이 1) 예비적으로(Voorlopige) 2) 더풍성하며(rijkere) 3) 완전한 량(volkomer maat)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조주의를 피하고 상호 구별성을 유지하면서 전대것과 후대 것과 통일성을 기한다. 즉 계시로 말미암아 지배되는 발전을 보게해서 하나에서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 요컨데 구속사와 그것의 계시사와의 관계를 존경중는 것이다.

이를 더 알기 위해서 K 스킬더가 그의 "성경연구"(schrift overdenkingen, III p296) 서론에서 서술하는 것을 인용하게 한다. 스킬더는 먼저 예언일반을 다룬다. 선지자는 종말(het einde)을 탐구하기 보다는 (태평(den einder)곧 시계의 한계를 탐구한다.

종말을 아는 자는 한 면 만을 즉 태양이 지는 앞면만 보여준다. 그러나 지평을 아는 자는 모든 면 곧 앞면과 후면을 보여준다. 태양이 떠오른 쪽과 지는 쪽을 보여준다. 시작과 끝(beginningener beginseler)을 보여준다.

이것을 예레미야와 그 예언에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성령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오늘 이후에 곧 오게 될 것을 보게하신다. 포로로 잡혀감이, 선지자가 분계선의 다른 면에 있는, 모호하게 감지 되는 어떤 것을 아주 멀리서 보게된다. 여기 "모호하게"란 말은 불확실하다(onzeker)는 말도아니고

명확히 구별은 안되지만 그래도 구별되는 어떤 것이다. 이 지평위에 어떻게 될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선지자는 잘 안다. 그 원래(beginsel)가 작동함을 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서는 포로생활 후에 일어난 것을 지금 말한다. 새 것이 야웨하나님이 자기 포로민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때에 주실 격변학인 구속으로 구도해 나간다. 야웨는 거기서 그렇게 역사하므로 신약의 날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나실 날을 향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자연히 작동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역사하실 일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포로생활 후에 "그 시대의 기회를 향하여" 시작한다. 그리고는 "지평선 뒤에 있는 시대들의 기회를 향하여 거듭 역사한다. 그리고 한번 영원의 기회를 향하여 역사할 것이다.

이미 말하였듯이 예레미야의 "새언약"은 신약 이전에 이미 오고 "그후에" 파괴할 그 시간의 기회를 향하여 작동할 것이다.

이런 시간 역사적 설명 다음에 K.스킬더는 이 예레미야 예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보라 날이 오리니 이 지평뒤에 새것 히브리어로는 הִנֵּה יָמִים(렘31 : 31)—이 있다. 이 새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이 예레미야 30-31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즉 자유… 평온함 삶…열매를 거두는 파송, 회개… 거듭되는 풍성(여기 본문장들에서 거듭 나타나는 말)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고대언약사에 있어서 하나님 섭리의 새로운 사역이며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있는 은사가 백성이나 개인의 회개를 갖고 있는 병행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이상 더 서로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렘31 : 34) 이상더 대중이나 사제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옛 요구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평선 뒤에 온다. 그리고 그것은 한 전체로서 "뒤에 올 각 시대의 기회를 향하여 이루어 나간다. 돌아와진다. 자유된 교회의 집단(Collectivum)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시대경륜의 량에 따라 온다."

〈구속사를 구성함에〉

지금까지 폭넓은 생각을 그려면서 간략히 스킬더의 취급을 상고하였거니와 그의 생각을 몇가지 간추려 봄도 유익하다. 먼저 31-34절은 30-31장의 전체 문맥과의 관계속에서 특히 포로귀환과 관련해서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특별한 귀절들에서 서술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사하실 은사들이 인정되고, 이 귀절들의 많은 다른 귀절들과의 연계성은 물론 그 "특별한" 성

격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적" 이니 "외적"이니 하는 구분은 잘못된 것 같다. 장래의 평온한 삶이 "회개"며 재건되는 제[illegible]예배 등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신약이전에 시작된 새 언약의 시작은 본문자체며 그 문맥과 관련해서 볼때 인정된다. 그러나 그 본분이 예언적 본문자질로 올바르게 설명되어질려면 그 예언 자체가 해설을 갖고 있다는 해석학적 전제를 고려할때 만이다. 즉 그러한 예언은 "지평선"을 지시하며 결따라 그 지평선과 함께 또는 배루에 작동하는 "원리"(beginsel)를 지시한다. 선지자는 언제나 "그 배후에" 오는 것을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전너편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지시하여 준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분량이나 단계 곧 층계들로 "성취"되어 간다는 "선지적 조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그 자체 유용한 가치는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K. schilder는 Ridderlos들의 것을 상당히 인정했다) 불만족 스러운 것이 있음도 사실이다. 비유컨데 미리 준비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첫째날에는 1프로 다음에는 29프로 마지막에는 나머지 70프로하여 포함 100프로식의 지불 형식이되어 마지막 잔금 지불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달력의 규칙성 있게 다가 오는 그런 생각이다. 태양이 한정없이 떠 올랐다가 지는 그리고는 멀리 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된 준비금에 비유되는 구원자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과 결정에 있는 구원일찐데, 그 구원이 병원에서 준비된 선물인양 병원에서 죄인 이상의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체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을 펴져 약속과 예언의 의미로 나타나고 신앙의 들음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다음세대들의 기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짜 따라 성취해 가는 것은 아니다. 더 풍성한 날자가 오는 다음 시대는 언제나 분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서 사역되고 그의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따라 이루어진다. 새 시대와 기회는 그 약속의 말씀 자체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 자체 성취를 이루려 할 때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경우가 아니며 그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옆에 시간 경우가 있어 거기서 그 말씀 내용을 여러 계기들에 "맞추어나가"는 것이다(inpart). 그러나 모든 시간이며 모든 햇수며 세대들과 경륜들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미리 부름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대상은 신약교회로서 개인이라기 보다는 집합적인 것임을 (Collectivum) 즉 경건한 개인 전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구원시간에 관한 한 알더스가 한 것처럼 일정한 시간들 사이를 택할려고 하지 말것이며 리델가 한다고 보아지는 일정한 시간들의 총체를 쌓

는 것도 아니다, 단지 말씀자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역사 바로 그안에서 그 말씀은 그 다음 날자를 그 첫것에서 끌어내어 보도록 작용한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 전의 사건들 자체 사건들 안에서 이미 가능성으로 두었던 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은 미래를 만들고 예비하신다(maar ook daar, just daar, in de geschiedenis, die zelf door het woord wordt gemaakt, dat woord werkzaam te zien om de volgende datum te halen uit de eerst, nl, uit wat God zelf door zijn beloft in dat eerdere gebeuren zelf al had gelegd aan mogelijkheden die Hij zelf voorde toekomst maakte en voorbreide).

그래서 순수한 "새로운" 어떤것, 새로운 경륜, 일년의 전에 알지못한 특별한 구원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은 이미 옛날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옛것은 그 후대에서보다 훨씬 적다 할찌라도, 그럼에도 밖에서 부터오는 다른 어떤 것들이 확정할 수 있는 모든 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우주여행에 위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상에서 나는 자료들로 지어졌다. 그래서 다음것은 이미 발견되어진 전의 것에 붙어있어야 그래야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나 방향이 꺼꾸로 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치 하늘에서 부터 여러 미사일이 땅으로 쏘아져서, 서로서로 이합집산 하는것이다. 처음에는 구약적 근거이고 그위에 신약적 구조이고 그리고 한번은 영원한 옷을 입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생활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그것에 대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것은 구원이요, 큰 구원이다. 그 새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은 전에 보다 다른 것이다.

요컨데 여기서 새로운 날의 서광이다. 그리고 거기서 진실로 일어 났기 때문에 후에는 더욱, 다르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한다. 더욱 더 영광스럽게 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이미 들어왔다. 그 사건들은 아무것도 이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문의 원뜻을 찾아서〉

신약이나 그 신약성취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렘31 : 31-34의 본문을 해석함에 선지자가 말하였고, 그당시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원래적인 본문의미로 재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신약성취의 보다 더 풍성한 부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바르게 터득해야 한다.

우선 당면하는 중요한 어려움은 이 본문에서 약속된 언약의 선물들이 지시하는 용어들이 그리스도 성령 사역에 대한 폭넓은 신약교류가 관계도 되며 일부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사용과 관계되고 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자기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하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이 말씀 다음에 "작은자로 부터 큰자까지 다 나를 알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을 키우지 아니하리다"고 한다.

이런 용어들의 습성은 확실히 성령께서 택자들의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중생" 곧 "마음의 거듭남"과 관련된 말이다. 더욱이 히브리 8장은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박히심과 부활과 그이 안에서의 구원은사들과 불가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 본문은 포로생활에서 부터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자체를 상고하고서 그 촛점을 살펴 보고져 한다. 어떻게 서로 언결되며 어디서 전수되었는지를 살피고 특히 소홀히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져 한다.

무엇보다 유명한 구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와 "그들마음에 기록"이라는 말씀은 성령사역에 의한 "중생" "마음거듭남"으로 아직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아무 상관이 없는 단계인지도 모른다. 아직 많은 큰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야웨께서 저들에게 그의 법을 전해 특별한 방식으로 아직 전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전에 보다는 훨씬 적은 저들이지만 할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생의지침 교훈으로 삼고 저들 생을 율법에 조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잠언서의 말씀과 비견하면 잘 이해 될것이다. 잠언에서 거듭나오는 말씀 "내 마음으로 내법을 지키라"(3 : 1, 비교2 : 1) 든지 뒤에 나오는 말씀 "네 마음판에 새기라"(3 : 3, 7 : 3)라고 한다. 그러니 잠언서의 "아들"이 이렇게 행할때에는 분명 회개를 한 것 같이, 회개를 시작하여 진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마음 거듭남에 해당하는 마음에는 의존되어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한 전사랑 곧 지혜의 교훈에 의존되어 아들의 전생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잠언서의 "네목에 매여"(잠3 : 3) "네 손각에 매라"(7 : 3)는 것에 예견된다.

잠언의 훈계며 계명을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표현은 어떤 내적인 것을 말하는것 이라기 보다는 진주 장식을 어디 몸 위에 "걸치는(두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에는 약속이 동반하고 있다. 즉 이것들이 너를 장식시켜 주시

되 훈계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관이 될것이요, 네속의 금사들 이라고 한다(1 : 9), 이런 표현은 율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 그 율법이 어떤 이의 삶을 지향하고 지배하도록 하자는 말씀이다. 잠언서의 "네 가슴에 두며"(ter harte nemer)는 아직은 같은 데서 항상 상주하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고 "콧등에 두어" 항상 원하는 대로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잠언서의 "아들"이 아니고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질 것으로 말하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라고 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의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위대한 구원약속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야웨는 지금껏 자기 백성과 함께 왔다는 것보다 더더욱 나아가신다. K.스킬더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 예를 들다. 교육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생도가 시험에 낙제하면 그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리 말하기도 한다.

더 좋은 방법, 강도높은 가르침 더 철저한 감독이 있었다면 한다. 어쨌든 이 둔한 생도들을 보더 더 좋은 교육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일까? 이 생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감동된 한 교육자는 내가 밤낮 잠을 못자도 내가 그것을 주입시키겠고(inhameren) 그들이 파악하도록 분명히 하겠다 한다. 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하겠다고 한다. 예레미야 31장외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말씀이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 판에 쓴다는 말은 때려서라도 주입시키겠다"는 말 보다는 더 혹된것은 아닐 것이다. 강도 높은 화강암 아니면 철판에 글을 새기는 것에 비유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코를 끼어서라도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속에 율법을 둔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과 같이 대동소이한 외적인 (내적이 아닌) 말씀이다. 어머니가 놀기 좋아하는 학생아이에게 네 책상에다 네 코를 꿰어메고 책을 읽어 알도록 하겠다 할 때 그 아이는 이상 더 먼 눈 팔아서는 안되고 공부에 집착해서 잊어서는 안되겠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학적 표현은 다음 문항에서도 분명하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는 말씀에서 "가르친다"는 말과 "알다"는 말이다(34 ; a절) 근데 이 말이 포로생활에서 부터 자유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쨌든 이 본문의 "알다"는 말이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는 쉽게 헬라사상의 과장된 "아는 지식 아니면 신비가들의 "알자"는 의미로 채색되므로 교육적인 면이 제거되고 있다. 신비가들은 "알다"는 하나님과 숨은 교제에서 오는 내적 경험 차원에서 이해하므로 신비주의적 조망, 침착 몰입과 같은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물론 성경도 경험이나 체험(beleving, bevinding)을 강조했지만 신비가

들이 하는것과는 다르다. 실제적 교육차원에서 너는 교훈 내용없이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 현실 경험을 통해서(proefondervindelijk)보고, 증명하고 느껴서 너 스스로 당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셈족적 히브리 "지식"으로서 추상화하고 객관화하는 헬라적 지식과는 다르다. 히브리 지식은 지식화된 지식의 내장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실때에 하나님의 계시에 순응봉사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이본문에서의 "알다"는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열방가운데서 그 흩어짐에서 끌어낸다는 것에서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의 연대 확정에 어려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자체에서 오는 그 부요함에 대해 감사해야 했지만 포로귀환의 놀라운 구원사실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등에서 538년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한 것은 예레미야 구원약속의 성취라고 말한다.

마음에 율법을 주는 일, 야웨는 알고,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사죄를 하는 야웨를 아는 것을 말한다. 이 새 언약은 족장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깨뜨린 옛 언약과는 같지 않다고 한다.

유대인들의 포로민들(가로에트)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의 이 놀라운 일은 출애굽에서도 많이 들려지는 일로 장래일로 보아진다(Leon Uris *Exodus*(Baar (1980). 오늘의 이스라엘의 국가를 두고도 성경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찬양하는 유대인들을 보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오직 외적 경험들이기는 하나 야웨에게로 돌아오는 귀환(아리야)과는 먼것이다. 일어나야 할 일은 흐터짐에서 손에 손잡고 올라오는 것은 사죄의 하나님 야웨를 앞으로서나 이는 바로 예레미야가 멀리보고 자기 고토를 향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흩어진 백성에 대한 구원약속이 진술하는 내용이다.

예레미야 31장의 "알다"에 강조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 하나님을 알기를 가르치고 있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자기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속하기에 바쁘신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완고성으로 인해 헛된 일에 걸기를 바빴다. 그런고로 북국사마리아가 이미 멸망되었고 남국 유다 역시 곧 잡혀간 것이다. 그러나 야웨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증거가 있다(시126). 그래서 그것은 첫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인도하던 것과는 다르다. 근절되다 시피한 후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더 큰 은혜의 기적이다. 첫번기는 야웨가 그들에게 돌비석을 주셨고 그 위에 그의 율법을 새겼다. 그러나 지금은 야웨는 더 나

아간다.

교훈이 무한히 강화되어 지금은 처음에 그들을 몰아냈던 같은 손길이 그들을 다시 이끌어온다. 이제 한 사실이 가정화 되는데 교훈 토라가 저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니 다시 영접함을 받은 내던져진 돌이 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특히나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들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며 부르심이 세대를 통해서 서로 서로에게서 배워 생생하게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겠는가? 젊은 자로부터 늙은이에게까지 생생한 체험을 하였다. 저들의 포로 생활의 비참에서 올라올 때 저들 모두가 경험한 사실, 전에 일찌기 말하는 것을 들었던 대로 야웨의 백성이 큰손과 편팔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은 전형적 구약의 "체험"(eruaring) 지식이다. 이런 체험적 지식이 말하는 것은 들었다는 전수적 지식을 가치가 없다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후자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이 일어났지"라고 참으로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마다 유월절 식탁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사실을 말하였다(고후3 : 15), 이 수건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고대 교훈공식을 반복하므로 마음과 눈을 완전히 덮어 버렸다. 그럼에도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 너희 스스로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는 고대 교훈이 새 사건으로 인해 참으로 체험될 것이다. 그리하며 각자마다, 젊은이로 부터 늙이이에 이르기 까지 말하게 된 사실은 야웨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리요! 라고 한다.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중 새언약은 애굽에서 나왔던 옛 조상들의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저들이 깨뜨린 옛 언약과는 다르다.

새 언약에 기록된 토라는 이제 주입되어 있어 사실들로 코가 납작하게 됐다(met de neus op de feiten zal drukken) 그래서 그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어 이상 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는 하지 않고 모두가 놀라운 귀환의 순간을 체험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주 하나님은 순전히 자비히 여기시는 분 주권적 사죄를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된 것이다.

자비와 사죄는 예레미야가 이 31장에서 말하면서 이 위대한 약속으로 끝을 맞는다. 왜냐하면 (하역에는 없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것은 앞에 말한 것 지식에 대한 동인(motief)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다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교훈을 떠남의 동인이 된다. 이것은 바로 연결해 주는 논리적 계기들이 아닌가 그리하여 첫것은 골고다와 부활절로 연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 예견되어 있는 구원이 시간의 파쇠속에 들어오기 까지 순서따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다음호에 계속될 것이다.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

한 정 건
(고신대교수. 구약학)

4.7 롬 9-11장에 대한 바울의 요약(롬11 : 25 이하)

4.7.1 이 단락을 롬9-11장의 나머지부분에 덧붙임

25-27절은 여러 세기동안 수많은 논쟁이 극에 달했던 격전장이 되어 왔다. Bartling의 말대로, 이 구절들은 자주 곡해되었었다. : "바울서신은 베드로때부터 곡해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벧후3 : 16). 그 배경을 따라서 이 특별한 구절에 대한 해석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주석적인 곡해를 예증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Calvin과 그의 추종자들의 해석에서 나타난다.

이 어려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과 나머지 구절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본 단락이 하나의 결론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전되어진 개념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만약 이 단락이 후자의 의미라면 26절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그 앞부분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구절은 9-11장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1) 25절의 도입단어인 γάρ 은 이 구절이 앞에서의 언급, 특히 24절의 언급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바울이 새로운 개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Sanday 와 Headlam이 지적한 대로, γάρ 은 특별히 "비밀"이라는 단어와 연관 된다. 그 "비밀"은 9장1절부터 이 싯점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1장1절부터 줄곳 다루어져 온 역사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말해준다. 따라서,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단락은 앞의 단락들과 단순하게 연관되어 있다기 보다는 9장에서 11장24절까지의 그의 모든 논지의 요약인 것이다.

3) 11 : 25-32의 내용은 Coetzee가 확신있게 보여준대로 9-11 : 24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 그 "비밀"의 첫번째 부분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는 아주 명백하게 11 : 1-11과 17-24절(특히 11절)로 되돌아 간다. 두번째 "비밀"인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으로("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